통권 제59호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7월

발행일 : 2025년 6월 30일 KOTRA VIETNAM BUSINESS NEWS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 2
- 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해외시장뉴스 ····· 14
- <팀코리아협의체 동정>관광공사, 베트남 방한시장 공략…이번엔 '스포츠' 15
- <기업탐방> ST인터내셔널 ····· 16
- <법률>베트남 상표권 등록 절차 안내 ····· 전현우 변호사 20
- <회계>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16탄 ····· 엄진용 회계사 22
- <통관>미국관세대응을 위한 원산지 관리방안 ····· 이여람 관세사 24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하노이시> ····· 26
- <이달의 보고서> OECD Economic Surveys: Viet Nam 2025 ····· / KOTRA 관세대응 지원사업 메뉴판(개정판) ····· 33
- <이달의 전시회> 2025 베트남 호치민 기계 전시회 ····· 34
-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 35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 40

문의처
편집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84 24-3946-0511 soorin@kotra.or.kr
〈 저작권자ⓒKOTRA 〉

베트남 스마트시티, 기술과 거버넌스 수출의 새로운 무대

- 스마트시티 국가 전략 추진...교통·환경·행정 전 분야 디지털 전환 가속
- 맞춤형 솔루션·현지 협력 기반으로 베트남 도시혁신 진출 확대 유망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 로드맵과 정책 방향

급속한 도시화와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베트남 정부는 스마트시티 개발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2025년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개발 계획(2030년까지의 비전 포함)'을 수립하고, 스마트시티를 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명시했다. 해당 계획은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시범 구축 완료, 2030년까지 도시 간 연결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시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비전 아래, 현재 베트남 전역에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 중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개발 목표 실현을 위해, 10개 그룹으로 구분된 핵심 과제와 실행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과제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시작으로, 인프라 확충, 첨단 기술 도입, 시민 서비스 확대,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베트남 스마트시티 정책의 10대 주요 과제 요약>

그룹	주요 과제	주요 내용
1	입법·정책 및 KPI 마련	스마트시티 관련 법제 정비, KPI 설정 및 ICT 프레임워크 지침 제공, 도시 관리 자금·감독 관련 정책 수립
2	국가기술 기준·표준 및 과학연구	스마트시티 기술표준 수립, 데이터 보안 규정 제정, 과학·기술 연구 및 지재권 보호 촉진
3	도시 데이터 인프라 구축	공간정보체계·도시 DB 단계별 구축, ICT 기반 다양한 도시기능 통합, 보안·오류 처리 역량 강화
4	지능형 도시계획 시스템	스마트시티 계획 애플리케이션 개발, 도시개발 이론과 방법론 적용
5	기술 인프라 개발	스마트 기반시설 구축: 공공조명, 교통, 수처리, 폐기물, 스마트그리드 등, ICT 인프라: 정보처리센터, 도심 무선인터넷 연결 등
6	스마트 서비스	공공서비스 및 경보 유틸리티 개발,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행정서비스 확대
7	인적 자원 및 기술 연구	스마트 시민 양성 교육 확대, 연구개발(R&D), 창업 지원, 산학연 연계 및 국산 기술 육성
8	투자 및 기술 지원 확대	국내외 자본 유치 (PPP 포함), 세제·신용·토지 인센티브, 국제 협력 및 기술 도입 지원
9	국제 협력 및 기술 이전	국제기구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 ASEAN 및 국제 포럼 참여 확대, 국제 기준에 맞춘 법적 기반 구축
10	인식 제고 및 정보 확산	대중홍보 및 시민 교육, 기업·지역사회 대상 설명회 및 피드백, 우수 도시·개인 포상 제도 운영

베트남 주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1) 하노이 북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넛떤–노이바이)

하노이 북부 넛떤–노이바이(Nhat Tan–Noi Bai) 지역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베트남 정부와 일본 스미토모 그룹, 베트남 BRG 그룹이 공동 개발하는 약 42억 달러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이 지역은 하노이 중심부와 노이바이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약 270헥타르 부지에 스마트 교통 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행정 시스템, 스마트 주거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 정부의 국가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과 연계돼 있으며, 2032년 완공을 목표로 단계적 개발이 진행 중이다. 외국 자본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대표적 공공-민간 협력(PPP)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 빈홈 스마트시티 (Vinhomes Smart City)

하노이 서부에 조성된 빈홈 스마트시티는 빈그룹(Vingroup)이 주도하는 민간 주도형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로, 약 280헥타르 규모의 대규모 복합 주거 단지이다. 이곳에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 얼굴 인식 기반 보안 시스템, 스마트 홈, 헬스케어 센터, AI 기반 관제 시스템 등이 도입돼, 일상생활 전반에 첨단 기술이 자연스럽게 융합되고 있다. 또한, 빈패스트(VinFast)가 생산한 전기버스 VinBus가 운행되며 친환경 교통수단을 실현하고 있다. 빈홈은 도시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베트남이 자체적으로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 민간 사례로 평가된다.

(3) 빈즈엉(Bình Dương) 스마트시티

남부 베트남의 공업 중심지인 빈즈엉성은 2016년부터 '트리플 헬릭스(정부–기업–대학)' 모델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해 왔다. 빈즈엉은 세계 스마트시티 연합(WCSM)의 정식 회원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 혁신을 목표로 ICT 기반 행정, 스마트 산업단지,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다수 입주한 산업 거점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 혁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스마트시티를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도시 경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접근이 큰 특징이다.

시사점

스마트시티를 국가 전략 과제로 삼고, 도시 전반에 걸쳐 ICT·IoT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추진력은 단순한 인프라 확장을 넘어, 행정·교통·에너지·환경 등 도시 운영체계 전반의 재편을 의미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개발계획(2018~2025, 2030 비전)'에 따라 로드맵 기반의 구조적 투자와 제도 정비가 동반되고 있어, 정책 일관성과 수요 예측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구조적 기반 위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경우, 단기 수주 중심의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형 기술·서비스 제공자이자 공동 기획자로서의 전략적 위치 선점이 가능하다. 특히 베트남은 도시 간 스마트시티 추진 속도와 역량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 도시에 맞는 단계별, 과제별 전략 수립이 필수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가 강조하는 디지털 행정 시스템, 시민참여 기반 서비스 등은 기술력뿐 아니라 제도 설계 및 파트너십 운영 경험이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단순 솔루션 공급을 넘어 스마트 거버넌스 설계, 데이터 통합 운영, 지속가능 모델 구축 역량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베트남 스마트시티 시장은 기술과 제도의 융합형 진출 전략을 통해 장기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으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모델 구축을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베트남 건설기계 시장동향

- **도시화·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끄는 건설 기계 수요 증가**
- **중국산 점유율 확대…한국 기업은 A/S, 부품 수급 등 질적 차별화 필요**

시장동향

시장 성장의 배경에는 도시화의 지속, 건설산업 회복, 인프라 투자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베트남의 도시화율은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과 도시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도시화율은 44.3%에 달하며, 정부는 2025년까지 45%, 2030년까지는 50%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인프라 확충과 주택 건설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건설 기계 수요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건설산업은 2021년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0.63%에 머물렀던 건설산업 성장률은 2022년 8.17%로 반등하였으며, 이후에도 2024년까지 7%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러한 회복세는 각종 인프라 및 민간 건설 프로젝트의 재개를 촉진하고 있으며, 건설 기계 도입 수요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산업 회복 흐름에 발맞춰, 베트남 국회는 2024년 270억 달러였던 공공투자 예산을 올해 360억 달러로 확대했으며, 이는 도로, 공항, 철도 등 인프라 분야에 중점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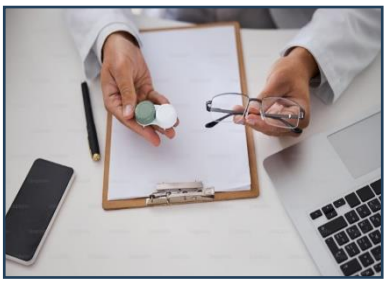
경쟁동향

베트남의 건설 기계 산업은 기계 및 기술 전반에 걸쳐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브랜드로는 Komatsu(일본), Kobelco(일본), Hyundai(한국), Caterpillar(미국), Develon(한국, 舊 두산) 등이 있으며, 이들은 폭넓은 제품군을 통해 건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의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정품 부품 공급과 체계적인 A/S를 통해 브랜드 신뢰성과 시장 내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XCMG, SANY, Liugong 등 중국 브랜드의 입지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베트남 건설시장에서 비교적 저렴한 중국산 기계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는 중국산 산업용 기계에 대한 선호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시사점

베트남은 도시화와 인프라 개발 확대에 따라 건설 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젝트(남북고속도로, 롱탄 신공항 등)의 본격화로 수입·임대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중소형 시공업체가 많은 구조상, 신품보다 중고 기계에 대한 수요가 높고, 초기 비용 절감을 위한 임대 수요도 확산 중이다. 한국 기업은 중고 기계 수출과 함께 부품 공급, 유지보수, 기술지원 등 통합 서비스 모델을 통해 시장 진출장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현지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리스, 할부 등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면 중소업체 대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중국산 기계가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나, 내구성 부족, 기술지원 미흡, 부품 수급 어려움 등 품질에 대한 우려도 여전해, 한국산 기계는 기술 신뢰성, 연비, A/S 등 품질 기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베트남 콘택트렌즈 시장동향

- **K-뷰티와 미용 트렌드를 타고 성장 중인 베트남 콘택트렌즈 시장**
- **인증·라벨링·유통 절차 사전 대비 필수… 기능성보다 이미지와 감성 중심의 현지화 전략 필요**

시장동향

베트남은 고온다습한 기후와 오토바이 중심의 교통 환경으로 인해 콘택트렌즈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다. 이로 인해 여전히 안경류가 시력 보정 수단으로 일반적이며, 콘택트렌즈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K-pop의 영향과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로 컬러렌즈를 포함한 콘택트렌즈에 대한 수요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베트남의 콘택트렌즈 판매액은 2018년 3769만 달러에서 2024년 4847만 달러로 약 24.5% 증가했으며, 2029년에는 5907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콘택트렌즈 시장 규모는 안경류 대비 4~5배 이상 작지만, 소비문화의 변화와 미용 목적 수요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주요 브랜드 및 트렌드

최근 3년간 수입통계 기준으로는 중국, 한국, 미국 등 주요국 제품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 인지도와 선호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브랜드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의 알콘(Alcon), 일본의 메니콘(Menicon), 미국의 존슨앤존슨 비전케어(Johnson & Johnson's Visioncare), 바슈롬(Bausch + Lomb) 등이 주요 브랜드로, 이들 기업은 제품 다양성과 품질, 오랜 브랜드 신뢰를 바탕으로 베트남 내 안정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알콘은 우수한 착용감과 수분 유지력을 앞세워 높은 소비자 선호도를 얻고 있으며, 메니콘은 산소 투과율이 높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각막의 편안함을 강조한다. 존슨앤존슨 비전케어는 '아큐브(Acuvue)' 시리즈로 다양한 라인업을 제공하며, 바슈롬은 '바이오트루(BioTrue)'와 '소프렌(SoFlens)' 등의 제품으로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강세 속에서도 중국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 제품은 품질과 디자인 측면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향후 시장 주도권은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가격, 디자인, 유통 전략 등 다면적인 요소에 따라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컬러 콘택트렌즈 시장에서는 한국 브랜드의 존재감이 두드러진다. 특히 Ann365(앤365), Dolleyes(돌아이즈), Clalen(클라렌)과 같은 브랜드는 다양한 색상과 이미지로 현지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브랜드는 K-뷰티 트렌드와 함께 '자연스러우면서도 또렷한 눈매'를 연출해주는 이미지 마케팅을 강조하고 있으며, SNS를 중심으로 높은 확산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 브랜드인 Kilala(키라라) 또한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본 컬러부터 트렌디한 스타일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다. 컬러렌즈는 착용 이미지와 후기의 영향력이 큰 품목으로, SNS에서의 입소문이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틱톡 등 영상 기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용 후기와 비교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기 리뷰 영상은 수십만 회 이상 조회되며, 제품의 자연스러운 착용감, 색상별 차이, 추천 브랜드 등 실사용자

의 피드백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이처럼 콘텐츠 중심의 홍보 전략은 제품력 못지않게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유통구조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베트남 소비자의 68.5%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있으며, 31.5%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콘택트렌즈의 특성상, 정확한 도수 측정과 착용감 확인이 필요해 직접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비교한 뒤 구매하는 소비자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컬러렌즈나 미용 목적의 렌즈처럼 기능보다는 외관에 초점을 둔 제품, 또는 이미 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가격 할인이나 배송 편의성 등의 이유로 온라인 구매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향후 유통 전략 수립 시, 제품 종류별 특성과 구매 목적에 따른 온·오프라인 채널의 병행 운영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베트남 콘택트렌즈 시장은 아직까지 안경류에 비해 수요가 제한적인 편이다. 그러나 K-pop 아이돌과 인플루언서의 영향으로 컬러렌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미용 목적의 수요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콘택트렌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력 보정뿐 아니라 미용 목적의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는 추세다. 베트남 소비자는 가격에 민감하면서도 색상, 착용 이미지, SNS 후기 등의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기능성 중심의 제품 전략을 넘어서, 다양한 컬러 및 디자인 라인업을 구성하고 K-스타일을 활용한 SNS 중심의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만큼, 수입 시 요구되는 인증 절차 및 베트남어 라벨링 등 관련 규정 준수가 필수적이다. 또한 제품 특성과 소비자 구매 행태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 채널을 병행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콘택트렌즈 시장은 현재 규모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아, 한국 기업이 현지 수요와 소비 성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차별화된 유통·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접근한다면 경쟁력 확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베트남 폴리프로필렌 시장동향

- **제조업 지속 성장에 따른 폴리프로필렌 수요 확대**
- **중국산 점유율 급등 등 경쟁 심화 대응 필요**

시장동향

베트남의 폴리프로필렌 시장은 현재 경량성, 내구성, 그리고 비용 효율성이라는 고유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소재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모양으로 쉽게 성형할 수 있다는 가공상의 장점과 결합돼, 포장용기부터 필름, 자동차 부품,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조공정에서 선호되는 소재가 됐다. 현지 조사기관 MORDOR INTELLIGENCE 보고서에 따르면, 폴리프로필렌을 포함한 베트남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2025년 1184만 톤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2030년까지 1776만 톤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 궤도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8.44%라는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의미하며, 이는 베트남 제조업의 급속한 발전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같은 수요 증가 현상은 여러 산업 분야의 동반 성장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선 포장산업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이 포장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이끌고 있다. 동시에 베트남 정부의 식품 안전성 강화 정책은 고품질 포장재에 대한 선호도를 크게 높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현지 FMCG(Fast Moving Consumer Goods, 일용소비재)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가 다양한 소비재 포장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분야의 성장 역시 폴리프로필렌 수요를 늘리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들 역시 건설 자재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발생시켜 폴리프로필렌 시장의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경쟁동향

베트남 플라스틱 협회(이하 'VPA')에 따르면, 베트남 플라스틱 산업은 중국, 한국 등지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최대 70%를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 국내 폴리프로필렌 생산 능력은 빠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공급 부족이 심각하고 이에 따라 중국 및 한국의 폴리프로필렌 물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24년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제품 수입액은 15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베트남 내 주요 폴리프로필렌 생산업체로는 Stavian Quang Yen Petrochemical Project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15억 달러 투자로 연간 60만 톤 생산 능력을 구축할 예정이며, 2026년 4분기 가동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 Honeywell UOP와 이탈리아 Basell Poliolefine Italia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가동 중인 업체 중 Nghi Son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mpany는 연간 40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30만 톤을 해외 수출용으로 할당하고 있다. 한국기업 진출 사례로는 Hyosung Vietnam Co., LTD가 바리아붕따우 성에서 연간 60만 톤 규모의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 Binh Son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 Ltd는 연간 15만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지 주요 이슈 ①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한 생산 차질

베트남 내 일부 생산업체들은 최근 공급과잉과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지 언론들

에 따르면, 베트남 롱손 석유화학단지는 태국 SCG 그룹 산하 기업으로 연간 최대 240만톤의 플라스틱 펠릿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산 저가 수입 물량으로 인해 운영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효성화학 베트남 법인 역시 폴리프로필렌 가격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사업에서 경영 부담이 커진 것으로 전해진다.

현지 주요 이슈 ② 환경오염 대응과 재활용 시장의 부상

베트남은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연평균 3백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베트남 정부는 '2030년 목표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가 행동계획'에서 2025년 플라스틱 폐기물 50%, 2030년 75%를 절감할 것으로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과 함께 플라스틱에 대한 높은 수요, 풍부한 폐기 자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녹색 전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맞물리며, 향후 베트남 내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은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시사점 및 진출전략

베트남 폴리프로필렌 시장은 연평균 8.44%의 높은 성장률, 70%에 달하는 수입 의존도, 그리고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 등으로 인해 한국기업에 명확한 기회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 전자제품, 포장재,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시장 잠재력도 크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의 점유율 확대는 주요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40.1%로, 한국산 제품은 2년 만에 약 9%p 하락하는 등 위축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공급확대와 지속적인 시장 공략에 따른 구조적 변화로,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또한, 베트남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재활용 플라스틱 수요가 증가하면서, 친환경 소재 대응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은 가격 경쟁력 확보와 함께 재활용, 고기능성 제품의 개발, 현지 맞춤형 전략 수립 등 변화하는 경쟁 구조와 정책 변화에 민첩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베트남 의료용기기 시장동향

- **베트남의 의료용기기(HS코드 9021.90) 제품은 90% 수입에 의존**
- **한국은 2024년 베트남의 의료기기(HS코드 9021.90) 수입점유율 4위**

시장동향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시장 규모는 약 16억 7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베트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8번째로 큰 의료장비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베트남에는 총 588개의 의료기기 제조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총매출은 약 15억2500만 달러에 이른다. 이 중 진단 장비, 수술 기기, 치과용 기기 등 주요 치료용 장비를 포함한 의료기기 제조 분야에는 484개 기업이 집중돼 있으며, 이 분야의 2023년 매출은 약 14억1600만 달러로 전체 의료기기 제조산업 수익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정형외과 및 재활 장비 제조 분야에는 104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약 1억9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동향

베트남의 의료기기 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전체 의료기기의 약 90%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 독일, 미국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가 전체 수입의 57%를 차지한다. 2024년 기준, 주요 수입 대상국은 싱가포르, 독일, 한국으로, 이들 3개국의 수입액 합계는 전체 수입액의 약 50.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싱가포르는 전체의 22.5%를 차지하며, 연평균성장률 31.9%로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가 물류·허브 기능과 함께 다양한 선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료용 기기를 개발하고 베트남에 폭넓게 수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은 안정적인 공급원으로 전체의 18.7%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제3의 수입국으로 2022년 팬데믹 회복기 동안 수입이 일시 증가했으나, 이후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다.

시사점

HS 코드 9021.90에 해당하는 정형외과용, 보철용, 치과용 의료기기는 베트남의 의료 인프라 확대 및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맞물려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품목이다. 특히 산업재해, 교통사고, 골절 및 재활 치료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 병원과 전문 클리닉의 확장으로 정형·재활 분야의 첨단 장비 및 보조기기 도입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 역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해외 첨단 의료기기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술력과 품질을 갖춘 해외 브랜드에게는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 보건부의 정책 변화로 입찰 및 조달 제도가 점차 유연해지고, 병원이 직접 공급업체에 견적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브랜드 인지도와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한 기업에게 실질적인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입찰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어 가격 경쟁력, 사후 서비스 체계,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 구조 확보가 시장 진입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3개 도시 두각 및 세계 순위 상승

스타트업 평가기관 StartupBlink은 베트남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를 55위(전년 대비 1단계 상승)로 발표함. 3년 연속 순위 상승임. 호찌민시는 동남아 Top 5 진입, 하노이 9단계 상승(148위), 다낭 130단계 상승(766위)함. 정부·지자체·민간·국제기관 협력 통해 생태계 기반 강화, 블록체인·물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냄.

[Vietnam.vn 5.28]

▶ 북부·남부에 재생에너지 산업 허브 조성 추진 제안

산업무역부는 조정된 제8차 전력개발계획 이행 위해 지역 간 재생에너지 산업 서비스 허브 2곳을 제안함. 북부(하이퐁·꽝닌·타이빈), 남부(닌투언·빈투언 등)에 풍력·태양광 설비 제조,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제안. 2030년까지 풍력·태양광·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수출 확대, 전력 수입 다변화도 병행 추진.

[The Investor Vafie Magazine 6.2]

▶ 5월 제조업 PMI 49.8...기준치 하회 지속

생산 회복에도 수요 위축 지속됨. 2025년 5월 베트남 제조업 PMI 49.8 기록, 4월(45.6) 대비 상승했으나 기준치 50 미만 지속. 미국의 관세 정책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며 생산량 회복세, 그러나 여전한 불확실성으로 수주 부진 지속. 베트남 제조업체들은 수요 부진 속 22개월 만에 투입 비용 감소 및 가격 인하 단행함.

[Saigon Giai Phong 6.2]

▶ 5월 CPI 0.73% 상승

주거·외식·관광 중심의 소비자물가가 상승세임. 2025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월 대비 0.73% 증가, 전년 동기 대비 2.76% 증가, 1~5월 평균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했으며, 주거·전기·수도·연료·건축자재(2.55%), 외식(0.55%), 관광(0.45%) 등 8개 항목 가격 상승, 교통은 0.72% 하락, 교육 항목은 변동 없음.

[Bao Danang 6.3]

▶ e스포츠 산업, 2030년까지 1,000만 달러 수익 전망

2023년 수익 578만 달러 기록, 전년 대비 11.15% 증가함. 지역 대회 확대 및 상금 규모 증가, 전체 인구의 16%가 시청자로 참여함. 젊은 인구, 게임 문화, 정부·교육계 지원으로 디지털 경제 신성장동력으로 부상중.

[Vietnam Net 6.4]

▶ 미국과 상호 무역협정 위한 장관급 협상 진행

신규 43건에 2억 6,900만 달러, 기존 12건에 4,000만 달러 추가 투자 유치. 전년 동기 대비 총 투자액 약 3배 증가, 기존 프로젝트 증액은 69배 증가함. 주요 투자 분야는 전력·가스(36%), 제조업(21.2%), 물류(16.3%), 투자 대상국은 라오스(45.5%),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등임

[Vietnam.vn 6.5]

▶ 외국인직접투자(FDI) 5개월간 51% 급증

제조업·부동산 중심, 증액 투자·지역별 증가세 뚜렷함. 2025년 1~5월 외국인직접투자(FDI) 총액 약 18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함. 신규 투자액은 70.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으나, 건수는 14% 증가했고 증액 투자는 85.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배 급증, 건수도 28% 증가함. 주요 투자 분야는 제조업과 부동산으로, 각각 103.9억 달러, 49.9억 달러 유치함. 투자국별로 싱가포르 43.8억 달러, 한국 29.3억 달러로 각각 1, 2위 기록했으며,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2.47배 증가함. 지역별로 하노이 32억 달러, 박닌 27억 달러, 호찌민 25.8억 달러 유치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5배 이상 증가함.

[Vietnam News 6.5]

▶ 베트남 1~5월 해외 투자 2.3배 증가, 전력 분야 집중

2025년 1~5월 해외 투자 3억1,7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0% 증가함. 신규 투자 46건, 2억7,570만 달러로 170% 급증, 라오스가 최대 수혜국이며 투자 비중은 전력·가스(35%), 제조(22.7%), 운송·물류(15.9%) 순임

[Saigon Giai Phong 6.8]

▶ 1~5월 섬유·의류 수출 175억 달러 돌파

2025년 1~5월 섬유·의류 수출 175.8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함. 수입 106.3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69.5억 달러 달성함. 글로벌 수요 부진에도 틈새시장 개척 등으로 안정적 생산 유지했으나 원자재 자립도 낮아 추적성·디자인 개발에 한계,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Vietnam Net 6.10]

▶ 1~5월 섬유·의류 수출 175억 달러 돌파

2025년 1~5월 섬유·의류 수출 175.8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함. 수입 106.3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69.5억 달러 달성함. 글로벌 수요 부진에도 틈새시장 개척 등으로 안정적 생산 유지, 원자재 자립도 낮아 추적성·디자인 개발에 한계, 경쟁력 저하 우려됨.

[Vietnam Net 6.10]

▶ 퀄컴, 베트남에 AI R&D 센터 런칭

2025년 6월 10일, 퀄컴이 하노이·호치민에 AI 연구개발 센터 공식 출범함.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다양한 분야 연구와 베트남 인재와 글로벌 역량 결합 및 베트남의 AI·디지털 전환 전략과 연계, 기술 이전 및 생태계 구축 기여 예정. 베트남의 AI 역량 강화 및 글로벌 혁신 가치사슬 내 위상 제고가 기대됨

[Vietnam Net 6.11]

▶ OECD, 베트남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OECD는 2025년 베트남 성장률을 6.2% → 6%로 하향 전망함.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수출 둔화를 우려했으나 민간 소비와 공공 투자로 여전히 동남아 내 긍정적 성장 전망 유지. 물가 상승·통화가치 하락 우려로 통화정책 완화 유지 여부 주목.

[Vietnam Net 6.11]

▶ 성급 행정구역 개편 결의안 통과…전국 34개 성·시 체제 확정

6월 12일 오전, 국회 2025년 성급 행정단위 배치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됨. 개편 후 행정구역은 28개 성과 6개 도시로 구성, 11개 성·시는 기존 체계 유지됨. 행정구역 재편에 따라 개편된 지방정부는 7월 1일 공식 출범 예정

[Tuoi Tre 6.12]

▶ 디지털 기술산업법 통과, 디지털 자산 합법화 및 반도체 산업 육성 골자

국회는 디지털 자산 법적 지위를 인정한 디지털 기술산업법을 2026년 1월 1일 시행함. 가상자산·암호자산으로 분류, FATF 권고 따른 자금세탁방지 규정 이 포함되며 반도체·AI·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 분야에 세제·인재·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 반도체 전주기(설계~패키징) 지원으로 글로벌 공급망 핵심 국가 도약 목표

[the investor 6.15]

▶ 다낭에 첫 자유무역지대(FTZ) 설립,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계획

총리 결정 1142/QĐ-TTg로 1,881ha 규모 FTZ 공식 출범함. 생산·물류, 무역·디지털산업·혁신 등 복합기능, 원스톱 관리체계 도입. 리엔찌에우항·국제공항 등과 연계, 글로벌 공급망 허브 및 경제중심지 목표. 다낭 국제금융센터와 연계된 스마트 경제 생태계 조성 추진

[Vn Economy 6.17]

▶ 부가가치세(VAT) 인하 2026년 말까지 연장 결정

국회는 경기 부양 위해 VAT 10%→8% 인하 조치 추가 연장 승인함. 통신·금융·부동산 등 일부 업종 제외, 대부분 재화·서비스에 적용. 2025.7~2026.12까지 세수 약 121.7조 VND(약 47억 달러) 감소 예상

[Tuoi Tre 6. 17]

▶ 미-베트남, 제3차 양자 무역협정 협상서 실질적 진전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6월 19일 기자회견에서 6월 9~12일 워싱턴D.C.서 열린 협상서 대부분 분야 간 이견 축소됐음을 밝힘. 미국은 베트남의 제안·우려 수용 의지 표명, 기술급 협의 지속키로했으며,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관계 구축 의지 재확인.

[Vietnam Plus 6.19]

▶ 온라인 판매자 부가세·소득세 자동 원천징수 시행

정부령 117/2025/NĐ-CP 시행에 따라 7월 1일부터 온라인 플랫폼 기반 개인 판매자, 주문 완료 즉시 VAT 및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거래 취소나 반품 시 환급 및 공제 가능, 세무 절차 간소화 및 공정한 과세 환경 조성 목적

[Vietnam Finance 6.22]

▶ 미국, 베트남산 합판에 반덤핑 조사 개시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산 경질 및 장식용 합판에 대해 최대 152.41%의 덤핑 마진과 정부 보조금 혐의로 동시 조사 착수, 약 100개 베트남 기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됨. 미국이 베트남산 합판 수입 급증을 판단할 경우 예비판정일 기준 최대 90일 소급 과세 가능성 검토예정.

[Chat luong Viet Nam 6.20]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SCI Tan Thanh Wind Power Plant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

2. 프로젝트 세부정보

발주처	Quang Tri Investment, Trade and Tourism Promotion Agency (IPA) - Quang Tri People's Committee
프로젝트	▪ 현장위치 : Huc Commune & Ba Tang Commune & Huong Loc Commune, Huong Hoa Dist., Quang Tri Province, Vietnam ▪ 프로젝트 진행상황: Approved Investment Policy ▪ 프로젝트 내용: ➢ Land area: 10.49 ha ➢ Installed capacity: 30 MW ➢ Expected connection method: Construction of SCI Tan Thanh 35/220kV step-up substation with a capacity of 50MVA; expandsion of one 220kV feeder bay Lao Bao 500kV substation (Huong Hoa); and construction of a 220kV transmission line connecting the SCI Tan Thanh 35/220kV step-up substation to the 220kV feeder bay at the Lao Bao 500kV substation (Huong Hoa), with a total length of approximately 5km. ➢ The project's operating period: 50 years from the date of the investor approval decision. ▪ 세부일정: ➢ 2023-2025: Preparation for investment ➢ Q3/2025: Bidding for investment selection ➢ Q4/2025: Construction ➢ Q4/2026: COD

▶ 美 하원 세제 법안에 포함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제도 수정 조항

◈ 하원 세제 패키지 법안 가결(5.22.)... 상원은 6월 중 법안 심의 및 표결 예정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청정산업 지원 정책의 축소 불가피
◈ 전기차 세액공제 2025년 말 종료, 주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적용 기간도 단축
◈ 청정 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 및 고용 감소, 미국 제조업 경쟁력 저하 우려 제기
[주요내용]:다운로드(클릭)

▶ 美 에너지 자립 및 원자력 산업 부양을 위한 행정 조치 주요 내용

◈ 트럼프 대통령, 에너지 자립 및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자력 행정명령 서명
◈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 4배(400GW)로 확대, 에너지 자립 및 국가 안보 강화
◈ 미 원자력 산업 부흥을 위한 혁신, 규제 완화 및 관련 부처 개혁 강조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 제조업 산업별 관세 정책 영향 및 현지 동향

◈ 제조업 PMI 등 주요 지표에서 관세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 및 성장 둔화 조짐
◈ 산업별 영향은 엇갈린 반응, 업계는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안정성 요구
◈ 공급망 다변화·디지털 전환이 제조업 경쟁력 유지의 핵심 과제로 부상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관광공사, 베트남 방한시장 공략…이번엔 '스포츠'

21~22일(현지시간) 호찌민시서 '2025 코리아 트래블 페스타' 개최…7만 운집
'리그 오브 레전드' 부스 운영 및 선수들 무대 인사, ''영웅' 김상식, 명예 홍보대사 위촉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는 21~22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시 중심지에 자리한 젬 센터에서 '2025 코리아 트래블 페스타'(2025 Korea Travel Festa)를 열고, 베트남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베트남은 7%에 달하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젊은 소비자 중심의 해외 관광 수요가 확대하고 있다. 한국 프로 e스포츠가 인기가 높고,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지휘하는 김상식 감독이 '국민 영웅'으로 자리 잡는 등 한국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했다.이번 페스타에는 7만여 관람객이 찾아 한국의 매력을 즐겼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라이엇게임즈코리아), 'K-뷰티'(아모레퍼시픽), 'K-푸드'(농심) 등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K-컬처 부스'뿐만 아니라 클룩(KLOOK)의 '라이브 커머스 방한 상품 판촉' 등 다양한 이벤트가 관람객을 맞이했다. 특히 21일에는 김 감독이 '한국 관광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돼 호응을 얻었다. 그는 베트남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 한국 관광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전망이다. 관광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방한한 베트남 관광객은 51만여 명으로 방한 관광 핵심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며 "이번 페스타는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K-컬처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했던 만큼 실질적인 한국 관광 수요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ST인터내셔널, 연안풍력에서 해상풍력까지…베트남 전력시장 공략 가속

김경일 법인장

1. ST인터내셔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ST인터내셔널은 1962년 설립되었으며, 석탄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지난 60여년간 국내외 에너지 산업에 특화된 투자 및 운영 전문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파시르 탄광개발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연료시장에서 본격적인 입지를 다지게 되었는데, 이후 에너지/인프라 산업군 內 다양한 밸류체인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는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등에 투자를 확대 중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삼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었고, 2020년에 사명을 현재의 "ST인터내셔널"로 변경한 이후에는 에너지 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 등 투자 대상을 확대하여 현재는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춘 종합 투자 및 관리 전문기업으로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2.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T인터내셔널의 베트남 투자 포트폴리오는 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개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했는데, 2018년 Ben Tre 성 Biomass 열병합 발전 프로젝트, 2019년 Tra Vinh 성 소재 2개의 연안풍력발전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의 사업비 규모는 약 3억 5천만불에 달하고,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145MW 수준입니다. 저희 회사의 베트남 투자는 초기 개발(인허가)단계부터 시작하여 이후 건설-운영에 이르는 프로젝트 Lifecycle 전주기에 참여중인 점, 그리고 주요지분 투자를 통한 리더십 확보 및 이를 기반으로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Tra Vinh성 연안풍력 프로젝트 2건의 법인장으로 2023년말 부임하였고, 양 법인에는 법인장/신규개발이사/단지운영책임 총 3명의 한국 직원과 현지직원 27명을 포함 30명이 근무중입니다.

[이미지 설명 : ST인터내셔널이 개발, 건설하여 현재 운영중인 TWPC 48MW 연안풍력 단지 전경. 덴마크 Vestas 풍력터빈 12기 外 국내기업 CS Wind의 풍력타워와 LS전선의 Cable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단지를 Link Bridge로 연결하여 차량 이동을 통한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이미지 설명 : ST인터내셔널이 개발, 건설하여 현재 운영중인 Ecotech 77MW 연안풍력 단지 전경. 독일 Siemens Gamesa 풍력터빈 18기를 본격적인 해상풍력 기초구조물인 Monopile 상부에 설치하고, 해저케이블을 통해 국가 전력계통에 송전하고 있다.]

3. 베트남 사업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외국 투자자의 관점에서, 베트남의 사업 환경은 불확실성과 기회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베트남의 법제는 우리나라처럼 세밀하지 않고 그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은 일정 부분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사업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준과 잣대를 기준으로 평가하자면 베트남은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 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베트남 내 FDI 1위인 이유가 있다면, 역시 베트남의 무궁무진한 성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1억 가까운 인구의 상당 비중이 노동가능 인구, 그 중에서도 2-30대에 집중되어 있고 우수한 교육을 받은 인재를 찾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장기간 큰 변화 없이 안정되어 있는 환경이므로,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몰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남아 소재 국가중 매년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최초로 자국 브랜드의 자동차를 만드는 등 자부심과 저력이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불확실성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발전설비용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계획이 명확해 보입니다. 8차 전력개발계획 최신 개정내용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풍력설비 용량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프로젝트 투자, 설비 공급, 공사 수주 기회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간 베트남 전력공사(EVN)을 대상으로만 매전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민간 대형수요가와 직접 전력거래를 가능케 하는 Direct PPA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단기간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하였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Feed-in Tariff)를 사실상 중단하는 등 지원책을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발전원별로 상한가를 규정하고, 상한가 범위 내에서 발전단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정부 입장에서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명백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FIT 제도 하 달러환율과 연동하여 지급하였던 전력단가도 이제는 별도 연동 없이

현지화폐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외화 조달을 통해 투자하는 외국투자자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경제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해외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려움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팬더믹 기간동안 이루어진 풍력단지 건설의 일정/품질 관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수입품에 의존해야 하는 주요 기자재 생산 자체가 코로나로 지연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베트남의 수입 통관 절차 및 물류 일정까지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공사일정 관리가 어려워 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기간 제작된 기자재와 열악하고 제한적인 여건에서 공사했던 설비들에 대해서도 사업주로써 평시와 같은 적극적 품질관리를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는 특정 기한까지 준공 해야만 전력구매계약상에 보장된 FIT를 지급한다는 코로나 발생 전 수립한 정책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 일정/품질 관리의 모든 부분들이 도전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들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준공 및 안정적인 단지 운영에 까지 이르게 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첫째는 회사의 투자/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한 Risk 관리시스템과 다양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입니다. 저희 회사는 오랜 기간 인도네시아 등 해외 개발성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산전수전“을 겪은 임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쌓은 노하우와 더불어 회사가 구축하게 된 Risk 관리시스템 덕분에 프로젝트를 보다 세밀히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둘 째는 본사/법인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기간 가족들과 떨어져 베트남에 출장 왔다가 갑작스러운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해 반년이 넘게 숙소 건물에 격리된 선배가 있었는데, 단 한번도 회사나 저에게 힘들다고 이야기 한 적이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믿음직스런 선배, 동료들이 있었기에 저 또한 스스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5. 향후 계획하고 계신 신사업이 있으신가요?

베트남 전력개발계획에 따라 현재 단지가 위치한 동일 해수면구역을 활용한 확장 사업 추진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장에서 제안받는 다양한 합작투자 기회들이 있는데, 기존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관점에서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기간 건설관리는 사실상 불가항력에 가까울 만큼 어려움이 많았고, 그 과정을 이겨내면서 투자관리 노하우가 한층 성장하였다고 생각하여 향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면 반드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앞서서 말씀드린 베트남 재생에너지 투자 환경 변화 자체는 예전보다 도전적인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믿고 있습니다.

6.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의 직접 전력 매매 계약(Direct Power Purchase and Sales Agreement, 이하 "DPPA") 제도를 활용한 전력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언제쯤 관련 규정이 명확 해질지 의견이 있으신가요?

현재 저희는 베트남 소재 주요 국내/외국계 제조업체들로부터 DPPA 참여 제안을 받아 사업성을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복수의 프로젝트에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발전사업자 관점에서 DPPA를 통해 매출처를 EVN 外 상대방으로 다변화할 수 있다는 부분은 포트폴리오 전략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DPPA 제도상 여러 규정들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지만, 언제쯤 해소될 지는 솔직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송전선로 사용 분담금이라는 불확실성을 예로 들자면, 그 취지에 대해서는 업계 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DPPA 수요가와 공급자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준다면 시장 자체가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베트남 정부의 섬세한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 입니다. 또한 EVN에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전기의 상한가를 민간 사업자간 자율적인 계약인 DPPA 전력단가에 까지 적용하게 된다면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7.베트남 진출을 준비중인 한국기업에게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먼저 저 또한 많은 도움을 받았던 KOTRA 무역관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정보 및 적극적인 지원 서비스 활용을 권유해드리고 싶고, 전력산업 관련 기업이시라면 한국-베트남에너지협회(KEAV) 네트워크 참여를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베트남에는 비록 사소한 사안이라도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들어 주시고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대사관/영사관 소속 상무관님들과 더불어 각 지자체에 막강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KOCHARM 베트남 조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에는 오랜 기간 다양한 업계의 한국기업들이 진출하여 구축하게 된 큰 생태계가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사례들을 공유하며 Risk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출장을 통해 위에 예시로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험과 교류를 쌓아 보기를 권하고 싶고, 이것이 회사의 베트남 진출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JP LAW FIRM

베트남 상표권 등록 절차 안내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들어가며

최근 베트남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진행 하였으며,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여러가지 무분별한 가짜 상품들이 유통되어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마땅한 대처방안이 없어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특히 베트남에서의 상표권 등록은 일반적인 경우 약 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외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고려하시어 최대한 빠르게 상표권을 등록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본 칼럼에서는 베트남 법률상 상표권 등록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대상 내용

가. 신청 서류 제출

신청서류는 일반적으로 신청서, 상표의 표상, 상표를 등록할 상품 및 서비스 목록, 신청자 세부 정보, 위임장(대리인을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증명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나. 신청서의 형식 심사 (신청 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서류 제출 후,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형식 심사가 진행됩니다. 법률에 규정된 모든 필요한 문서가 제출되었는지, 신청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수수료가 납부되었는지, 상표 표상이 명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 신청서 공고

신청서의 형식적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표권 등록에 관한 공식 공고가 진행됩니다. 본 기간 동안 다른 제3자가 해당 상표권 등록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신청서의 실체 심사

상표에 대한 식별력, 기존 등록 상표 또는 잘 알려진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등에 관한 검토가 진행됩니다. 만약 심사관이 거절 사유를 발견하면, 심사 통지서를 발행하며, 신청자는 답변하거나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라. 심사 결과 통보 또는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실체 심사 후, 심사결과가 통지됩니다. 상표가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통지는 등록 및 공고 수수료 납부에 관한 통지가 되며, 거절의 경우 거절사유에 대한 설명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 상표등록증 발급 및 상표권 등록
상표권 심사가 통과되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완료되며 상표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마치며

상표권은 각 상표별 카테고리, 특성, 이미지 등에 따라 등록에 각각 다른 기간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을 포함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상표권자는 타인의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상표권을 등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아회계법인
Dong-A Audit & Advisory Co., Ltd.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16탄

동아회계법인 엄진용 회계사

들어가는말

안녕하십니까?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엄 진용 회계사입니다. 지난 6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되었습니다.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여건하에서 부디 경제와 민생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선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번호에서는 계속하여 한국내 급여소득 등에 대한 베트남내 처리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차원에서 과세관련 사항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거주자'로서 과세

지난달까지 설명드렸던 '이중거주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셨다면, 이번호에서는 '이중과세'에 대한 설명을 보다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중과세'라 함은 세법상 '거주자'의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에 해당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타국에서 본인의 명의로 벌어들인 모든 종류의 소득을 전부 합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를 '전세계소득 합산과세'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예외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중과세'라는 네 음절의 단어에 대한 거부함 내지 그리 썩 유쾌하지 않은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 이유를 찾아보면 1가지 사유로 귀결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중납세' 또는 '세금의 이중납부'와 같은 개념과 혼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중과세'라는 단어와 의미는 '이중납세'의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이중납세라는 단어의 의미는 말 그대로 납세하는 행위를 복수로 한다는 뜻이지요. 이러한 다소 불쾌한 의미의 이중납세가 이중과세와 다르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중과세는 복수로 납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적어도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세정을 확립하고 구축한 국가들)에서는 이중과세 적용시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본국에서 신고/납부시 이를 일정수준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하며 영어로는 'Foreign Tax Credit'이라고 부릅니다. 즉, 외국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사실을 소명하면 납부금액 전액을 있는 그대로 다 공제하지는 않지만 일정 수준의 계산을 거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만약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는데 이를 본국에서 아무런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중과세 = 이중납세'가 성립하는 것이고, 공제를 해준다면 이 두가지 개념이 등치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중과세'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과세'행위를 한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일단 개인으로서 벌어들인 소득의 종류가 무엇들인지 그리고 각 소득별로 벌어들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싹 모은 후 이를 본국의 세법체계에 맞게 세금이라는 것을 계산해보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의 총액을 그렇다면 전부 다 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세금을 공제나 감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추가로 더 따져보는 것인데요. 여기서 만약 해외에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해외납부세액공제'라는 것으로 제외시켜주는 것이라고까지 이해하시면 완벽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베트남을 기준으로 체

동아회계법인
Dong-A Audit & Advisory Co., Ltd.

류중인 한국인들의 경우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래전 과거부터 이미 베트남 체류중인 한국인 주재원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한국 본사와 베트남 자회사에서 동시에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재원 개인이 수령하는 급여 총액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과연 한국과 베트남간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소위 안전하겠냐는 것이 오래된 미해결과제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각각 50:50으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한국 20: 베트남80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할 것인지 엄청나게 많은 문의가 있어왔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의미없는 고민거리라는 것이 정답니다. 본 글의 상단부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중과세의 기본 개념과 목적하에서는 한국에서 수령하는 소득의 전부를 베트남에 합산신고/납부를 하게 되어있으며 물론 이 과정에서 한국에 이미 신고/납부한 소득세(소위 '갑근세'라고 부르는) 및 준조세성격의 4대보험까지는 해외납부세액으로서 공제를 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베트남에서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가 많은 것은 현실인데, 이러한 이유는 한국과 다르게 '소득공제를 비롯한 각종 공제항목들이 베트남에는 거의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한국내 급여소득(현재로서는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급여소득'까지 뿐입니다. '종합소득'의 개념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해 베트남에서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는 것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만약 베트남에 체류중인 한국인 주재원이 한국 본사에서 수령하는 급여내역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홈택스'에서 본인이 발급가능함)을 미제출하는 경우 과연 베트남 과세당국이 이를 어떻게 알고 추징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는데요. 아무리 베트남 과세당국이라고 해도 이를 납세자인 한국인 주재원이 소명을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추징을 위해 '추계과세'라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데요. 이는 세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관들의 재량, 즉 소명을 거부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해당 과세지역의 외국인 평균 급여소득을 근거로 이를 '추정'하여 '계산'을 한 뒤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평균 급여소득에 대한 자료는 세무조사관들 입장에서는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하노이시의 경우 월 평균 1만불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맺음말

다음호에서는 이번호에 이어서 한국내 급여소득 등에 대한 베트남내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과세관련 사항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원산지 관리 방안

FTA활용지원센터 이여람 관세사

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기조 아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통상 정책을 강화해왔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환경에서 기업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야는 바로 관세이며, 그 핵심에는 원산지 관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상호관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기업의 원산지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상호관세 부과 기준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무역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국가별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HS CODE 분류와 비특혜 원산지 판정이 필수적입니다.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비특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제3국산으로 간주되어 상호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품목분류와 비특혜 원산지 관리 체계를 철저히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비특혜 원산지 판정(CBP 원산지 판정)

FTA 원산지는 품목별로 명확한 기준(세번 변경, 부가가치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반면, 비특혜 원산지는 실질변형 여부를 기준으로 사례별(Case by case)로 판단합니다. FTA는 사후 서면검증이나 현지 실사가 중심이며, 비특혜 원산지판정은 수입통관 시점에 인보이스 및 물품표시 등을 통해 검증합니다. FTA는 원산지증명서로, 비특혜 원산지 판정은 상업송장, 원산지표시 등 다양한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CBP 기준 비특혜 원산지 검토는 모두 미국 세관(CBP)이 직접 수행합니다.

3. 원산지 관리 방안

CBP는 Form 28을 통해 원산지 검증을 통보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는 영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원재료 투입 내역 등과의 불일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자료 누락 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한 내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연장 요청도 가능하므로 사전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BOM에 원가 정보가 포함되어 제출을 꺼리는 경우에는 CBP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중국산 우회 수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BOM 및 제조공정에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를 포함시키고, 원산지 추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향후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 책임 소재에 대한 당사자 간 명확한 사전 합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4. CBP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용

미국은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https://erulings.cbp.go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자·수출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를 통해 품목분류, 원산지 표시, FTA 적용 가능 여부, 관세 환급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어 통관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평균 처리 기간은 약 30일에서 90일이며, 식품이나 화학제품 등 분석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샘플 제출이 필수입니다. 신청 시에는 과거 신청 이력 및 동일물품의 쟁송 여부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원산지, 제조공정, 산업 분야, 품목 정보 및 HS CODE를 포함해야 하며, 카탈로그, 사진, MSDS, 상세 제조공정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실질변형 기준 충족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발성 수출이 아닌 지속적인 수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이 제도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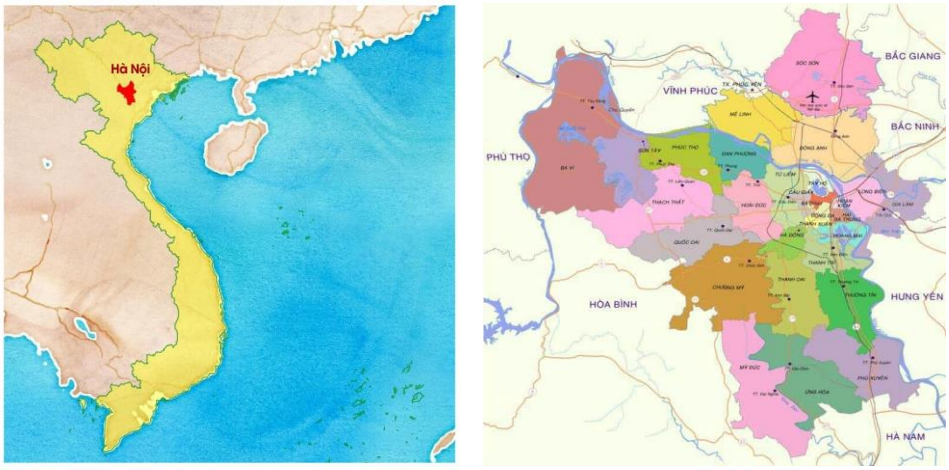
원산지 판정에 오류가 발생해 잘못된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국 세관(CBP)은 이를 FRAUD(고의), GROSS NEGLIGENCE(중과실), SIMPLE NEGLIGENCE(단순과실)로 구분하여 책임 수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0일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상태로, 일부 적용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은 사전 예방적 대응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자체 원산지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내부 대응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보고서가 향후 원산지 리스크에 대한 전략 수립과 실무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북부 유망 투자자-하노이시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 면적 : 3,359.82 평방 킬로미터 ▪ 인구 : 8,717,600명 / 도시 거주 비율 : 49.1%
지정학적 위치	▪ 하노이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수도로서, 국가의 정치·행정 중심지임. 또한 문화, 과학, 교육, 경제 및 국제 교류의 중심지로서 홍강 삼각주 지역과 더불어 베트남 전체 발전을 이끄는 핵심지역 중 하나임.
접근성	▪ 하노이는 홍강 삼각주 중심지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북쪽으로는 타이응웬(Thai Nguyen)성 및 빈푹(Vinh Phuc)성과 접경하고 있음. 남쪽으로는 하남(Ha Nam)성과 화빈(Hoa Binh)성, 동쪽으로는 박장(Bac Giang)성, 박닌(Bac Ninh)성, 흥옌(Hung Yen)성과 인접해 있음. 서쪽으로는 화빈(Hoa Binh)성과 푸터(Phu Tho)성과 경계를 이루고 있음.
GRDP 성장률 / 1인당 GDP	▪ '24년 GRDP 성장률 : 6.52 % ▪ '25년 1분기 GRDP 성장률 : 7.35 % ▪ '24년 1인당 GRDP : US 6,760달러
경제규모 산업별 성장률	▪ 2024년 현재 가격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 : 589억 달러 ▪ 총수출액 : US 191억 2,600만 달러 / 총수입액 : US 410억 4,400만 달러 ▪ 산업별 성장률 : 제조업/건설업(6.21 %), 서비스업(7.14 %), 농림어업(2.52 %)
경제구조	▪ 제조업/건설업 : 22.79 % ▪ 서비스업 : 65.6 % ▪ 농림어업 : 1.96 %, ▪ 생산물세 : 9.65 %
인적자원	▪ 경제활동 가능 인구 : 47.8 % ▪ 훈련 노동자 비율 : 경제활동 인구의 74.25 % ▪ 자격증 소지 노동자 : 훈련 노동자의 54.1 %
최저임금	▪ 현재 하노이의 지역별 최저임금은 2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가장 낮은 임금은 월 441만 동(약 US 169.4달러/월) 또는 시간당 21,200동(약 US 0.81달러/시간)이고, 최고는 월 496만동(약 US 190.5달러/월) 또는 시간당 23,800동(약 US 0.91달러/시간)임.
외국인투자 ('24.12월 기준)	▪ 총 외국인투자 : 7,527개 프로젝트, 총금액 : US 556억 5천만 달러 ▪ 한국 투자 : 2,603개 프로젝트, 총금액: US 104억 3만 달러 ▪ 한국은 투자 117개국 중 자본 규모에서 3위, 프로젝트 수에서 1위

투자환경



하노이시의 위치 및 지도

➢ **교통시스템**

✓ (도로)

✓ 6개 고속도로(CT)가 하노이에서 각 지방으로 연결됨:

- CT01 - 닌빈(Ninh Binh) 방향
- CT03 - 화빈(Hoa Binh) 방향
- CT04 - 하이퐁(Hai Phong) 방향
- CT05 - 라오까이(Lao Cai) 방향
- CT07 - 타이응웬(Thai Nguyen) 방향
- CT09 - 꽝닌(Quang Ninh) 방향

✓ 10개 국도(QL)가 하노이에서 전국 각지로 이어짐:

- QL1 - 랑선(Lang Son)에서 까마우(Ca Mau)까지 연결되며 하노이를 약 36km 구간 통과함;
- QL2 - 빈푹(Vinh Phuc), 푸터(Phu Tho), 뚜옌꽝(Tuyen Quang), 하장(Ha Giang) 방향;
- QL2C - 뚜옌꽝(Tuyen Quang), 하장(Ha Giang) 방향;
- QL3 - 타이응웬(Thai Nguyen), 박간(Bac Kan), 까오방(Cao Bang) 방향;
- QL5 - 하이퐁(Hai Phong) 방향;
- QL6 - 화빈(Hoa Binh), 선라(Son La), 디엔비엔(Dien Bien) 방향;
- QL17 - 박닌(Bac Ninh), 타이응웬(Thai Nguyen) 방향;
- QL21 - 화빈(Hoa Binh), 하남(Ha Nam), 남딘(Nam Dinh) 방향;
- QL21B - 닌빈(Ninh Binh) 방향;
- QL32 - 푸터(Phu Tho), 옌바이(Yen Bai), 라이쩌우(Lai Chau) 방향.

(수상교통)

✓ 베트남 정부의 2021년 10월 31일자 제1829/QĐ-TTg 결정에 따라 승인된 '21~30년 수상 인프라 개발계획('50년 비전)'에 따르면, 북부 지역에 위치한 4개 회랑 중 하노이가 3개 주요 회랑 중심 축에 위치함.

- 꽝닌(Quang Ninh) – 하이퐁(Hai Phong) – 하노이(Ha Noi)
- 하노이(Ha Noi) – 남딘(Nam Dinh) – 닌빈(Ninh Binh)
- 하노이(Ha Noi) – 비엣찌(Viet Tri) – 라오까이(Lao Cai),

✓ 해당 3개 회랑은 홍(Hong)강, 다이(Day)강, 카우(Cau)강, 꽁(Cong)강 등 국가 주요 내륙수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음

(철도)

✓ 5개 주요 철도 노선이 하노이에서 출발함 : 호치민시, 라오까이(Lao Cai), 랑선(Lang Son), 타이응웬(Thai Nguyen), 하이퐁(Hai Phong) 방향.

✓ 도시철도(지하철) 노선 운영 중: 깟린(Cat Linh) – 하동(Ha Dong) 노선

* 시범 노선: 니언(Nhon) – 하노이역(고가 구간)

(항공)

✓ 노이바이(Noi Bai) 공항, 자럼(Gia Lam) (군)공항

(항만)

✓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롱비엔(Long Bien) ICD

✓ 수상 항만: 하노이 항, 빈도안(Binh Doan)11 항, 쿠옌르엉(Khuyen Luong) 항, 홍반(Hong Van) 항, 선떠이(Son Tay) 항, 젬(Chem)–리엔막(Lien Mac) 항

➢ 관광

✓ 2024년 하노이 관광객 총유치실적은 2,786만 명으로, 2023년 대비 12.7%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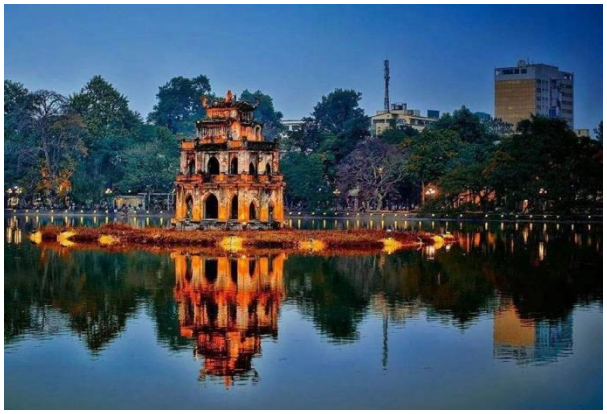
- 국제 관광객은 635만 명(이 중 447만 명은 숙박 관광객)으로, 전년 대비 34.4% 증가
- 국내 관광객은 2,151만 명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
- 관광수입 총액은 약 US 42억 4천만 달러로, 2023년 대비 18.3% 증가함

✓ 관광 숙박시설 현황 :

- 현재 하노이에는 3,761개 숙박시설, 총 71,256개 객실 보유
- 이 중 호텔 및 레지던스형 숙박시설 91개소가 1~5성급 등급 보유, 총 12,147개 객실 운영

* 5성급: 호텔 23곳, 레지던스 6곳
* 4성급: 호텔 14곳, 레지던스 2곳
* 3성급: 호텔 13곳

✓ 2024년에도 하노이는 세계 유수의 관광기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권위있는 상을 수상. 이는 하노이가 국제 및 동남아 관광지 중에서 선도적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임.



호안끼엠(Hoan Kiem) 호수

쩐꾸옥(Tran Quoc) 사원

경제개발 현황 및 발전 방향

➢ 산업단지 현황

✓ 하노이는 2025년 경제발전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개발을 통해 산업화 및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인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 제조업, 첨단기술 산업, 친환경 기술 응용 프로젝트, 전자, 정보, 기계, 제조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더불어 반도체산업 및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경제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하노이는 총 10개의 산업단지 및 첨단기술단지가 운영 중이며, 이 중 9개의 산업단지는 100% 분양 완료 상태임, 화락(Hoa Lac) 첨단기술단지는 현재 35%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음

➢ 투자 인센티브

✓ 화락(Hoa Lac) 첨단기술단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음

✓ 토지임대료 혜택: 전 임대기간 동안 토지임대료 전액 면제. 단, 투자자는 부지정리 비용(부지 보상 및 이주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비농업용 토지사용세 혜택: 전체 사용기간 동안 비농업용 토지사용세 전액 면제.

✓ 법인세 혜택:

- 최초 과세소득 발생 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면제,
- 이후 9년간 법인세 5% 적용,
- 다음 2년간 법인세 10% 적용.

✓ 수입세 혜택:

- 투자 프로젝트의 고정자산을 구성하기 위한 수입물품은 수입세 면제,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자재, 부품을 프로젝트 생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생산 개시 시점부터 5년

년간 수입세 면제,

-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기계, 장비, 부품, 전문 자재 및 과학기술 연구, 기술개발, 기술 인큐베이팅, 과학기술 기업 인큐베이팅, 기술혁신에 직접 사용되는 전문 서적, 자료 등은 수입세 면제.

➢ 외국인투자 현황

✓ 외국인 투자는 2024년 12월 기준 누계 총 투자액: 556억 5천만 달러, 총 프로젝트: 7,527건

하노이시 10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액($)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금융센터, 유치원, 공원, 주택 등을 포함한 기술 및 사회 인프라가 통합된 스마트 도시 조성	일본	4,138,000,000
서호 서부 도심 개발 프로젝트	서호 서부 도심 지역에 현대적이고 통합적인 신도시 개발	한국	1,322,000,000
경남 하노이 랜드마크 타워	5성급 호텔, 오피스, 상업시설 및 아파트 단지 건설 및 운영	한국	967,000,000
PCB 및 전자제품 제조 공장	인쇄회로기판(PCB) 설계 및 제작, 전자 부품 조립, 완제품 전자제품 생산	홍콩(중국)	800,000,000
롯데몰 하노이	쇼핑몰, 호텔, 오피스, 단기 투숙 관광객용 레지던스를 포함한 고급 복합단지 건설	한국	600,000,000
부영 국제 아파트 단지	30층 높이의 현대식 아파트 6개 동 건설	한국	316,000,000
삼성 R&D 센터	삼성 베트남 모바일 R&D 센터를 위한 오피스 건물 건설	한국	210,000,000
Aeon몰 하동(Ha Dong)	종합 쇼핑몰 개발, 관리, 운영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일본	192,000,000
한화 에어로 엔진 베트남 공장	항공기 엔진 및 산업용 가스터빈 엔진 부품 생산	한국	200,000,000
니덱(Nidec) 테크노 모터 베트남	브러시리스 DC 전기 모터 개발, 제조 및 판매	일본	200,000,000

✓ 한국 투자는 '24년 12월 기준 누계 총 투자액: US 104억 3만 달러, 총 프로젝트수: 2,603건

➢ 산업단지 현황

✓ 주요 산업단지 정보

산업단지명	설립연도	면적(ha)	비고
I. 운영 중인 산업단지 및 첨단기술단지			
화락(Hoa Lac) 하이테크 파크	1998	1,586	▪ 입주율: 35% ▪ 국가 고급기술 연구개발 및 응용 중심으로 계획됨. 교육, 연구, 산업, 소프트웨어, 주거 등 8개 구역 구성. 자동화, 생명공학, 정보기술, 신소재 산업 유치.

산업단지명	설립연도	면적(ha)	비고
탕롱(Thang Long) 산업단지	1995	274.3	▪ 입주율: 100% ▪ 관리비: 1 USD/m²/년 ▪ 유치산업: 전자, 전기기계, 자동차 부품 등 고급 기술 산업.
노이바이(Noi Bai) 산업단지	1994	114	▪ 입주율: 100% ▪ 임대료: 80~120 USD/m² ▪ 유치산업: 자동차 및 오토바이 부품, 정밀기계, 전자부품, 금속제품.
사이동(Sai Dong) B 산업단지	1997	40	▪ 입주율: 100% ▪ 서비스 비용: 1.5 USD/m²/년 ▪ 유치산업: 전자, 기계, 섬유, 플라스틱 부품 제조 등.
남탕롱(Nam Thang Long) 산업단지	1997	31.5	▪ 입주율: 100% ▪ 관리비: 0.3 USD/m² ▪ 유치산업: 기계, 인쇄, 통신, 식품 가공.
꽝밍(Quang Minh) I 산업단지	2004	407.9	▪ 입주율: 100% ▪ 임대료: 120~200 USD/m² ▪ 유치산업: 전자, 기계, 제약, 섬유, 식품 가공.
타익텃(Thach That)–오아이(Quoc Oai) 산업단지	2007	150.78	▪ 입주율: 100% ▪ 임대료: 5백만 VND/m² ▪ 유치산업: 전자, 기계, 식품, 섬유 등.
푸 응이어(Phu Nghia) 산업단지	2007	170.1	▪ 입주율: 100% ▪ 유치산업: 정보 미제공.
하노이–다이뜨(Dai Tu) 산업단지	1995	40	▪ 입주율: 100% ▪ 유치산업: 기계, 섬유, 식품 가공, 플라스틱.
정보기술 산업공원	2012	36	▪ 입주율: 36.4% ▪ 남은 토지 임대료 예상: 3,000~4,000 USD/m² ▪ 유치산업: 소프트웨어 생산, IT 교육센터, 호텔 등.
지원 산업단지 1단계	2012	76.9	▪ 입주율: 100% ▪ 임대료: 120~150 USD/m² ▪ 유치산업: 지원 산업 분야.

산업단지명	설립연도	면적(ha)	비고
III. 시행 중 산업단지 및 첨단기술단지			
꽝밍(Quang Minh) II 산업단지	2007	160	▪ 투자 유치 방향: 다분야, 첨단기술, 친환경 산업단지.
하노이 생명공학 하이테크 파크	2024	200.6	▪ 투자 유치 방향: 생명공학, 제약, 병원, 교육기관 및 연구소 유치.
속선(Soc Son) 친환경 산업단지	2021	302.8	▪ 투자 유치 방향: 다분야, 첨단, 친환경 산업단지.
풍 히엡(Phung Hiep) 산업단지	2024	174.8	▪ 투자 시작 예상: 2026년 1분기 ▪ 유치 산업: 다분야, 친환경 중심 산업.
동 아잉(Dong Anh) 산업단지	2024	300	▪ 투자 유치 방향: 다분야, 첨단기술, 친환경 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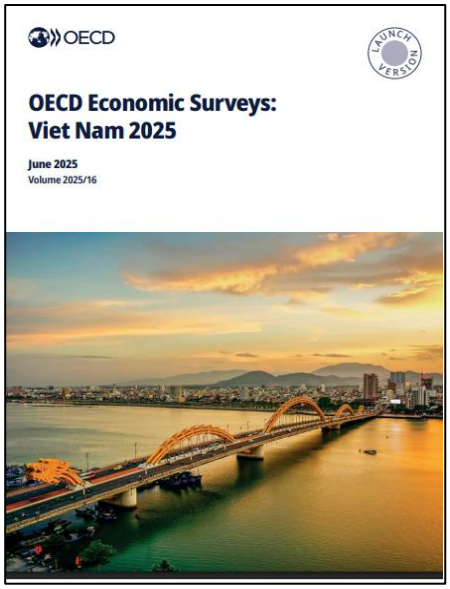
투자 유망분야

➢ **업종/분야**

✓ 반도체 산업	✓ 첨단 산업
✓ 지원 산업	✓ 친환경 산업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주소
하노이 재정국	Mr. Le Trung Hieu/부국장	하노이 Hai Ba Trung군 Le Dai Hanh동 Le Dai Hanh거리 52번지



OECD Economic Surveys: Viet Nam 2025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Foreword
2. Basic statistics of Viet Nam, 2023
3. Executive Summary

KOTRA 관세대응 지원사업 메뉴판(개정)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KOTRA 관세대응 지원사업 안내
2. 정부·유관기관 관세대응 지원사업 안내

2025 베트남 호치민 기계 전시회

전시회명	2025 베트남 호치민 기계 전시회[MTA VIETNAM]
개요	▪ 베트남호치민기계전시회(MTA)는 베트남의 기계, 공구 관련 대표 전시회이자 현지 바이어의 참관비율이 95% 정도로 향후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위해 필수로 참가해야 하며, 현지 산업동향 파악이 가능한 전시회로서 규모 및 참가업체는 꾸준히 증가할 것임. ▪ 베트남 내 최대 기계, 공구 및 금속가공전시회로 독일,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이 대규모의 국가관을 구성하여 참가하고 3D 프린팅, 자동화기기 등의 전시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개최기간	2025.07.02 - 2025.07.05
개최장소	SECC (Saigo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개최규모	16.000sqm(m2)
웹사이트	https://mtavietnam.com/
산업문야	기계&장비
전시품목	산업기계, 공구류, 공작기계, 용접기 등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1. 1~2025. 5.31 기준 누계		2025. 1. 1 ~ 5.31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10,203	93,786.66	151	196.44	2,938.32
싱가포르	4,116	86,229.21	219	2,116.14	4,389.63
일 본	5,584	79,335.22	117	753.39	2,005.00
대 만	3,333	41,712.21	81	412.44	817.2
홍 콩	2,987	39,859.61	196	607.65	1,058.08
중 국	5,543	32,859.61	454	1,813.25	2,214.68
버진아일랜드(영)	936	24,343.83	13	260.84	734.08
네덜란드	464	15,030.20	10	55.67	109.77
태국	767	14,873.84	14	46.36	848.48
말레이시아	772	14,562.79	18	7.5	1,567.86
미국	1,456	11,964.69	48	169.68	210.57
기 타	7,185	62,871.27	229	576.22	1,505.18
전체 합계	43,346	517,145.10	1,550	7,015.57	18,398.85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2025. 5. 31 기준 누계		2025. 1. 1 ~ 5.31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8,391	316,675.68	559	4,169.45	10,406.89
2	부동산 경영	1,268	78,204.36	51	2,025.54	4,991.07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99	42,072.30	1	116.2	194.12
4	호텔, 외식서비스	1,030	14,174.57	32	139.69	428.17
5	건설	8,517	12,426.63	487	200.29	599.09
6	도소매, 유지보수	1,857	10,897.01	20	6.14	174.69
7	물류운수	1,243	7,149.06	49	60.14	215.46
8	과학기술, 전문활동	4,956	6,204.98	181	179.16	1,016.22
9	정보통신	3,168	5,164.49	78	10.48	16.24
10	채광	107	4,870.39	-	-	0.61
11	교육, 양성	706	4,637.84	9	0.75	26.81
12	농,임,수산	539	3,841.68	3	11	7.28
13	예술 오락	151	3,169.30	1	0.16	0.68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84	2,703.79	3	70.58	101.61
15	의료와 사회복지	157	1,843.78	-	-	161.72
16	행정, 지원 서비스	701	1,224.90	30	20.06	111.26
17	금융, 은행, 보험	103	935.29	2	2.6	148.65
18	기타 서비스	162	938.41	4	3.33	16.05
19	가구내 고용활동	6	10.64	-	-	-
합 계		43,346	517,145.10	1,550	7,015.57	18,398.85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증감율%)

구 분	2022	2023	2024	2025.5
수 출	3,713	3,546	4,055	1,802(+14.0)
수 입	3,589	3,263	3,807	1,755(+17.5)
무역수지	124	280	247	46.7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2	2023	2024	2025.5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7,994	52,379	53,891	22,405(0.0)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55,536	57,336	72,584	38,415(+39.7)
기계/플랜트 및 부품	45,751	43,128	52,191	22,085(+16.4)
섬유/직물제품	37,566	33,329	37,036	15,058(+12.0)
신발류	23,895	20,237	22,871	9,756(+11.5)
원목 및 목제품	16,011	13,467	16,282	6,806(+8.6)
철강제품	7,993	3,973	4,594	2,338(+31.0)
수송수단 및 부품	11,988	14,157	15,066	6,704(+8.6)
수산물	10,923	8,971	10,040	4,207(+17.8)
원사(Yarn)	4,713	4,355	4,407	1,735(-4.4)
기 타	98,934	103,339	116,569	50719
합 계	371,304	354,671	405,531	180,228(+14.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2	2023	2024	2025.5
전자제품 및 컴퓨터	81,884	87,965	107,053	56,194(+38.3)
기계/플랜트 및 부품	45,192	41,579	48,887	22,896(+22.7)
각종 전화기 및 부품	21,126	8,749	10,403	4,164(+10.8)
의류(원단)	14,706	13,016	14,905	6,322(+4.6)
플라스틱 원료	12,387	9,755	11,780	5,171(+12.3)
각종 철강	11,920	10,425	12,583	4,544(-9.8)
기타 비금속	9,253	7,626	9,554	4,523(+22.0)
플라스틱 제품	8,119	7,508	8,853	5,171(+12.3)
화학제품	9,144	7,605	7,735	3,145(+0.3)
화학물질	8,747	7,726	8,286	3,249(-7.4)
기 타	136,423	124,419	140,724	60184
합 계	358,901	326,373	380,763	175,563(+17.5)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1	2022	2023	2024	2025.5
1	미 국	96,293	109,388	97,020	119,501	57,160
2	중 국	56,009	57,702	61,207	61,211	23,544
3	한 국	21,945	24,293	23,498	25,619	11,377
4	일 본	20,128	24,232	23,314	24,608	10,562
5	홍 콩	11,996	10,936	9,631	12,423	6,055
6	네덜란드	7,686	10,430	10,241	12,993	5,202
7	독 일	7,286	8,968	7,400	7,934	4,082
8	인 도	6,259	7,961	8,498	9,064	4,145
9	태 국	6,161	7,476	7,192	7,782	3,409
10	영 국	5,765	6,065	6,345	7,543	3,226
	기 타	96,782	103,853	100,325	116,853	51,466
	합 계	336,310	371,304	354,671	405,531	180,22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1	2022	2023	2024	2025.5
1	중 국	109,874	117,866	110,644	114,020	69,353
2	한 국	56,155	62,088	52,511	55,925	23,671
3	대 만	20,772	22,631	18,421	22,741	12,200
4	일 본	22,648	23,373	21,638	21,588	9,676
5	미 국	15,270	14,470	13,822	15,102	7,264
6	태 국	12,564	14,092	11,797	12,447	5,247
7	오스트레일리아	7,946	10,144	8,533	7,592	3,053
8	말레이시아	8,148	9,124	7,809	9,133	4,173
9	인도네시아	7,587	9,641	8,728	10,527	4,833
10	인 도	6,950	7,086	5,864	5,829	2,375
	기 타	64,320	68,386	66,606	105,859	33,718
	합 계	332,234	358,901	326,373	380,763	175,563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5
수 출	56,729(+16.9)	60,972(+7.5)	53,479(-12.3)	58,321(+9.1)	24,200(+5.7)
수 입	23,965(+16.5)	26,726(+11.5)	25,941(-2.9)	28,440(+9.6)	12,289(+7.9)
무역수지	32,763	34,246	27,550	29,880	11,911

자료원: KITA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1	2022	2023	2024	2025.5
반도체	14,026(22)	16,240(15.8)	12,729(-21.6)	18,039(+41.7)	9,377(+42.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2,050(26.1)	12,527(4.0)	12,350(-1.4)	11,227(-9.1)	3,595(-10.7)
석유제품	1,157(-3.2)	3,733(222.3)	3,327(-10.8)	2,731(-17.7)	829(-38.8)
무선통신기기	3,315(-4.2)	2,358(-29.2)	2,166(-8.1)	2,511(+15.9)	972(-6.2)
합성수지	2,415(49.5)	2,581(6.9)	2,001(-22.5)	2,333(+16.8)	900(-6.6)
기구 부품	2,405(7.3)	2,194(-8.8)	1,861(-15.1)	1,772(-4.8)	716(-3.0)
플라스틱 제품	1,174(5.3)	1,067(-9.2)	1,021(-4.2)	1,055(+3.4)	431(-3.9)
철강판	1,267(20.4)	1,069(-15.6)	887(-17.0)	994(+12.0)	401(+15.7)
기타기계류	957(43.0)	793(-17.1)	801(+1.0)	664(-17.0)	258(-21.4)
계측제어분석기	717(4.5)	815(13.6)	734(-9.9)	593(-19.1)	230(-5.2)
기타	17,039	17,242	15,612	16,402	6,491
합 계	56,729(16.9)	60,972(7.5)	53,489(-12.3)	58,321(+9.1)	24,200(+5.7)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1	2022	2023	2024	2025.5
무선통신기기	5,579(12)	5,986(7.3)	4,543(-24.1)	4,678(+3.0)	1,754(-11.5)
의류	3,393(7.9)	3,840(13.2)	3,542(-7.7)	3,593(+1.4)	1,384(-0.1)
컴퓨터	1,659(30.6)	1,948(19.1)	2,075(+6.6)	2,383(+14.9)	1,179(+9.4)
반도체	750(33.8)	787(5.0)	2,053(+160.9)	2,976(+45.0)	1,744(+61.0)
산업용 전기기기	725(26.2)	970(33.8)	1,396(+44.0)	1,699(+21.7)	773(+15.6)
신변잡화	984(-4.4)	1,250(27.2)	1,252(+0.1)	1,221(-2.5)	493(+2.0)
목재류	755(19.5)	942(24.8)	722(-23.3)	681(-5.7)	269(-5.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76(-14.7)	783(-10.5)	657(-15.9)	598(-9.1)	249(+25.2)
기구부품	624(29.6)	654(4.8)	571(-12.7)	654(-14.6)	281(+22.4)
영상기기	426(8.9)	441(3.6)	409(-7.2)	414(+1.2)	162(-2.6)
기 타	8,161	9,103	8,718	9,543	4,001
합 계	23,966(16.5)	26,726(11.5)	25,938(-2.9)	28,440(+9.6)	12,289(+7.9)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4~2025년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시 기	단위	국 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GDP증가율		2024년(연간)	%	7.09	5.03	4.4	5.1	2.5	5.6
		2024년 4Q	%	7.55	5.02	4.3	5	2.5	5.2
		2025년 1Q	%	6.93	4.87	3.8	4.4	1.3~2.3	5.4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4년(연간)	-	N/A	N/A	124.9	133.1	96.57	N/A
		2025년 3월	-	N/A	N/A	125.7	138.1	105.78	N/A
		2025년 4월	-	N/A	N/A	124.2	127.1	92.3	N/A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4년(연간)	-	N/A	N/A	N/A	49.35	49.88	N/A
		2025년 3월	-	50.5	52.4	50.6	48.8	49.9	49.4
		2025년 4월	-	45.6	46.7	49.6	48.6	49.5	53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4년(연간)	-	N/A	N/A	N/A	N/A	N/A	N/A
		2025년 3월	-	N/A	121.1	N/A	N/A	N/A	N/A
		2025년 4월	-	N/A	121.7	N/A	N/A	N/A	N/A
	소매판매	2024년(연간)	-	9	N/A	N/A	N/A	N/A	1.8
		2025년 3월	-	10.8	5.5	N/A	N/A	N/A	1.1
		2025년 4월	-	11.1	△2.2	N/A	N/A	N/A	0.9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4년(연간)	%	3.63	N/A	2.4	1.8	N/A	3.2
		2025년 3월	%	3.13	1.03	0.9	1.5	N/A	1.8
		2025년 4월	%	3.12	1.95	0.7	1.4	N/A	1.4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4년(연간)	%	N/A	N/A	N/A	N/A	N/A	N/A
		2025년 3월	%	N/A	N/A	N/A	N/A	N/A	N/A
		2025년 4월	%	N/A	N/A	N/A	N/A	N/A	N/A
고용	실업률	2024년(연간)	%	2.24	N/A	2	3.3	1	3.8
		2024년 4Q	%	2.22	N/A	2.1	3.2	0.89	3.4
		2025년 1Q	%	2.2	N/A	2	3.2	0.89	4
무역	수출증가율	2024년(연간)	%	14.3	2.28	N/A	9.4	5.42	△0.6
		2025년 3월	%	14.5	3.16	2.3	6.8	17.84	5.9
		2025년 4월	%	19.8	5.76	22.1	16.4	10.18	7
	수입증가율	2024년(연간)	%	16.7	5.31	N/A	5.6	6.34	1.4
		2025년 3월	%	19	5.34	4.6	△2.8	10.18	11.9
		2025년 4월	%	22.9	21.84	7	20	16.09	△7.2

[자료원]
-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MIER, S&P
- (태국) 산업경제실(OIE), 태국중앙은행(BOT),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UTCC), 태국상무부(MOC), 태국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itics, Unemployment rate

전망치는 *표시

2025 베트남 CSR/ESG 코칭 워크샵

KOTRA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는 베트남 진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2025 베트남 CSR/ESG 코칭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베트남 CSR 관련 정책, 동향, 수요 등의 정보 제공 및 1:1 컨설팅을 통한 기업별 CSR/ESG 추진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본 행사에 우리 기업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2025 베트남 CSR/ESG 코칭 워크샵
- 일시: 2025년 7월 30일(수) 14:00 ~ 17:00
- 장소: L7 웨스트 레이크 하노이 4층 스튜디오1
- 주최: KOTRA 베트남 비즈니스협력센터
- 참가대상: 베트남 CSR/ESG활동 전략 수립에 관심 있는 기업 10~15개사
- 행사언어: 한-베 순차통역
- 프로그램(안) *세부내용은 변동가능

시간	프로그램	연사
14:00-14:30	베트남 CSR 관련 정책, 동향, 수요	VUFO
14:30-14:50	베트남 진출 한국 기관/기업의 CSR 동향, 추진전략	굿네이버스
14:50-15:20	베트남 ESG 트렌트 활용 전략(가제)	VCCI
15:20-15:30	커피브레이크	
15:30-17:00	CSR/ESG 담당 기관- 베트남 진출기업 1:1 컨설팅	VUFO, 굿네이버스, VCCI

*베트남 우호친선연맹(VUFO): 베트남 내 외국 비정부기구(NGO)의 활동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총리 지시에 의해 설립된 기관. NGO 뿐 아니라 베트남 진출 외국기업의 CSR 활동도 지원(베트남 정부 정책 소개, CSR 전략 수립 지원, 협업 가능 지자체/기관/현지 기업 소개 등)

*1:1 컨설팅의 경우 기업 신청 수요에 따라 기업별 상담시간 조율, 상담 건당 30분 배정 예정

참가신청 바로가기[선착순 마감]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Vietnam-Korea Business Cooperation Center PARTNERSHIP

문의: KOTRA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kotravietnambiz@gmail.com / 024 3946 0511(531)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베트남 경제협력 후속사절단 참가기업 모집 안내

행사 개요

- **추진목적**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 및 현지 시장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기회 마련, 후속지원 연계 수출 확대 추진
- **일시·장소** '25.9.8(월)~9.9(화) / 베트남 하노이
- **프로그램** 1:1 비즈니스 상담회 및 현지 시장 설명회, 성과체결식 등

전체 일정

일자		일정
9.8(월)	오전	이동 (인천 → 하노이)
	오후	**현지 시장 설명회** *현지 시장 현황 및 한-베트남 FTA 10주년 연계
9.9(화)	전일	**1:1 비즈니스 상담회, 성과체결식** *사전 주선에 의한 B2B 상담회
	저녁	사후간담회
9.10(수)	-	이동 (하노이 → 인천)

모집대상 및 선정요건

- **모집 대상** 베트남 수출 희망 소비재·의료·ICT 등 **종합 분야 국내기업 30개사** 내외

< 필수 및 선정 우대 요건 >

① 영문 홍보물(브로셔 또는 동영상) 및 샘플 등 준비·제공가능 기업

② 계약 및 MOU 등 성과 체결(예정) 기업 ※현지 체결식 지원 및 행사 후 6개월간 후속지원 제공 예정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kotra 베트남 비지니스 NEWS

참가비 및 지원사항

- **참가비** 무료 * 출장 및 현지체류, 샘플배송 등 기업 소요비용은 자체 부담
- **지원사항**
  ① 바이어 발굴 및 사전 주선에 의한 **「1:1 비즈니스 상담」** 지원 (상담 통역 포함)
  ② 비즈니스 협력센터 및 FTA 활용지원센터 협업 **「현지 시장 설명회」** 참가 기회
  ③ 계약·MOU 등 수요기업 대상 **「성과체결식」** 개최·지원
  * 성과이행 수요기업 대상 국내외 담당PM 배정 및 F/UP 후속지원(6개월) 제공

신청기간

2025년 6월 25일(수)~7월 18일(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OTRA 무역투자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https://link24.kr/DPU4Wi7
- **제출서류**
  ① 사절단 참가신청서
  ② 기업·제품 소개 영문 홍보자료(카탈로그(PDF) 또는 동영상)
  ③ 별첨 양식 (MOU·계약 등 성과체결 예정 기업)

< 선정 방식 및 향후 일정 >

- **선정방식** 현지 무역관 시장성 검토를 통한 선정
  - 해외무역관의 현지 시장성 조사 및 바이어 의견 등을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진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중소·중견기업(브랜드) 선정 예정
- **향후일정** 선정기업 개별 연락 및 결과 안내, 상담주선 및 사전마케팅 활동 등 진행
  - 선정기업 개별공지 8월 1주경 예정(잠정)
  - 기업 홍보물(브로슈어 등) 및 필요시 샘플 발송, 현지 세부일정은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

문 의 처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KOTRA 경제협력지원팀 노현주 차장	hjro@kotra.or.kr	02-3460-7662
KOTRA 경제협력지원팀 하태욱 대리	gkxodnr45@kotra.or.kr	02-3460-7655
KOTRA 하노이 무역관 구자승 차장	kujs@kotra.or.kr	+84-24-3946-511
KOTRA 하노이 무역관 지혜 과장	mirandacode@kotra.or.kr	+84-24-3946-511

2025년 베트남 투자사절단 모집

행사개요

- ◉ **일시** : 2025. 9. 8(월) – 9.9(화)
- ◉ **장소** : 하노이 & 베트남 북부 산업단지
- ◉ **주최** : KOTRA, 베트남 무역진흥청(VIETRADE), 주한 베트남 대사관
- ◉ **참가자** : 베트남 투자진출 희망 한국기업 10개사 내외
- ◉ **주요내용** : 한-베 투자협력세미나, 베트남 주요 산업단지 매칭 및 면담, 베트남 북부 산업단지 현장 시찰, 지방 정부 방문 및 투자상담

프로그램

날짜	주요 일정
Day 0 (9.7-일)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 도착
Day 1 (9.8-월)	오전: 한-베 투자 및 무역 협력 세미나*
	오후: 베트남 주요 산업단지 상담* (필요시 산업단지 방문 포함)
Day 2 (9.9-화)	오전: 유치 희망 주요 산업단지 현장 방문*
	오후: 초청 지방정부 회의 및 관내 산업단지 시찰*
	저녁: 환송 만찬 후 한국 귀국 (기업별 개별 일정 추가 가능)

*한-베 순차통역으로 진행

참가비용

- ◉ 항공권, 숙박 등 제반 비용은 참가자 본인 부담.
- ◉ 교통 및 통역 서비스는 KOTRA에서 제공.
- ◉ 세미나 장소 제공 및 지방성과의 연결은 VIETRADE에서 담당.
- ◉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베트남 현지 동행 및 지원 예정.

※ **참가신청 링크:** https://forms.gle/gzwrKZyjejQucsHg7

※ **신청 마감일:** 2025년 8월 9일(금)

** 신청 마감일까지 참가 신청 5개사 미달시 행사가 연기 될 수도 있음*

※ **문의처:**

◉ **KOTRA: 02-3460-3247/ E-mail: bokkotra@kotra.or.kr**

◉ **주한 베트남 대사관: 010-8712-8689/ E-mail: tiendt@naver.com**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베트남 비지니스 NEWS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PARTNERSHIP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편집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84 24-3946-0511 soorin@kotra.or.kr
〈 저작권자ⓒKOTRA 〉